

2023. 10. 25.(수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10월 25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주택정책실 전략주택공급과

전략주택공급과장	남정현	2133-6280
----------	-----	-----------

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형주택공급부

청년주택계획팀장	김 훈	2133-6290
----------	-----	-----------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: 6매

맞춤주택공급부장	장대희	3410-8540
----------	-----	-----------

### 서울시, 청년 위한 주거사다리 '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' 입주자 모집

- 25개 단지, 총 528호 공급... 10.31.(화) 공고, 11.7.(화)~11.9.(목) 청약
- 만 19~39세 무주택 청년·신혼부부 대상... 내년 3월 이후 순차적 입주 예정
- 올해부터 연 2→3회로 입주자 모집 확대... 주거 불안정 청년에게 우선입주권
- 시 “청년에게 든든한 울타리 되어줄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속 확대해 나갈 것”

- 지하철 2·4호선 사당역, 8호선 문정역 등 역세권 편리한 입지에, 시세의 30~50%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‘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’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. 내달 청약에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된다.
- 서울시는 ‘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부문’ 시내 25개 단지, 총 528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. 10.31.(화) 모집 공고하고, 11.7.(화)~11.9.(목) 3일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(i-sh.co.kr)를 통해 온라인 청약을 진행한다.

- ‘청년안심주택’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무주택 청년,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서울시는 올해 4월, 청년주택 사업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‘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’을 발표한 바 있다.
- 시는 ‘청년안심주택’ 건립 시 용도지역 상향,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확보되는 추가분을 기부채납 받아 임대주택(공공·민간임대)으로 공급하고 있다. 공공임대·SH선매입에 해당하는 ‘공공임대’는 SH공사가, ‘민간임대’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입주자 모집 및 대상자를 선정한다.

<만 19~39세 무주택 청년·신혼부부 대상 시내 25개 단지, 총 528호 공급 예정>

- 이번 입주자 모집은 송파구 문정동 55-6 일원(153호), 동작구 사당동 1044-1(22호) 등 25개 단지, 총 528호가 공급될 예정으로 내달 청약 접수 후 내년 2월 발표하고, 최종 당첨된 입주자는 입주자격 확인 등을 거쳐 2024년 3월 이후부터 입주하게 된다.
- 만 19~39세의 무주택자인 청년 또는 신혼부부 중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, 본인과 부모 합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%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, 자세한 입주 자격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.

구 분	입주자격	
공공임대	19세~39세 이하 무주택 대학생, 청년, (예비)신혼 부부	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%이하
민간 특별공급		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%이하
민간 일반공급		소득제한 없음

<청년안심주택 유형별 입주자격>

-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(i-sh.co.kr) 또는 콜센터(1600-3456)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<올해부터 연 2→3회로 입주자 모집 확대… 주거 불안정 청년에게 우선입주권>

-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해마다 2차에 걸쳐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를 모집해 왔으나 청년·신혼부부의 ‘주거사다리’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 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3차로 늘려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

- 올해 8월 이뤄진 제2차 청년안심주택(공공임대) 입주자 모집 시 총 241호 공급에 24,079명이 지원, 평균 경쟁률 99.9:1을 기록하기도 했다.

- 아울러 시는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으로 작용하는 ‘관리비’를 절감하기 위해 올해부터 청년안심주택 주차장 유료 개방에서 비롯된 운영 수익을 관리비 인하에 활용하고, 당초에는 불가능했던 입주자 차량 소유·운행을 허용하여 편의 또한 높여주고 있다.

- 한편 이번 입주자 모집과 더불어 지역사회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고,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어려운 주거 불안정 청년에게 청년안심주택을 제공한다.

- 시는 자치구 내 아동복지시설 퇴소로 주거지가 필요한 청년, 수급계층 및 저소득층을 추천받아 우선 입주권을 부여할 계획이다.

-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“청년안심주택’은 한 번 입주하면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어 자산이 부족한 청년·신혼부부의 ‘주거사다리’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”며 “취업, 주거 등으로 힘든 청년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청년안심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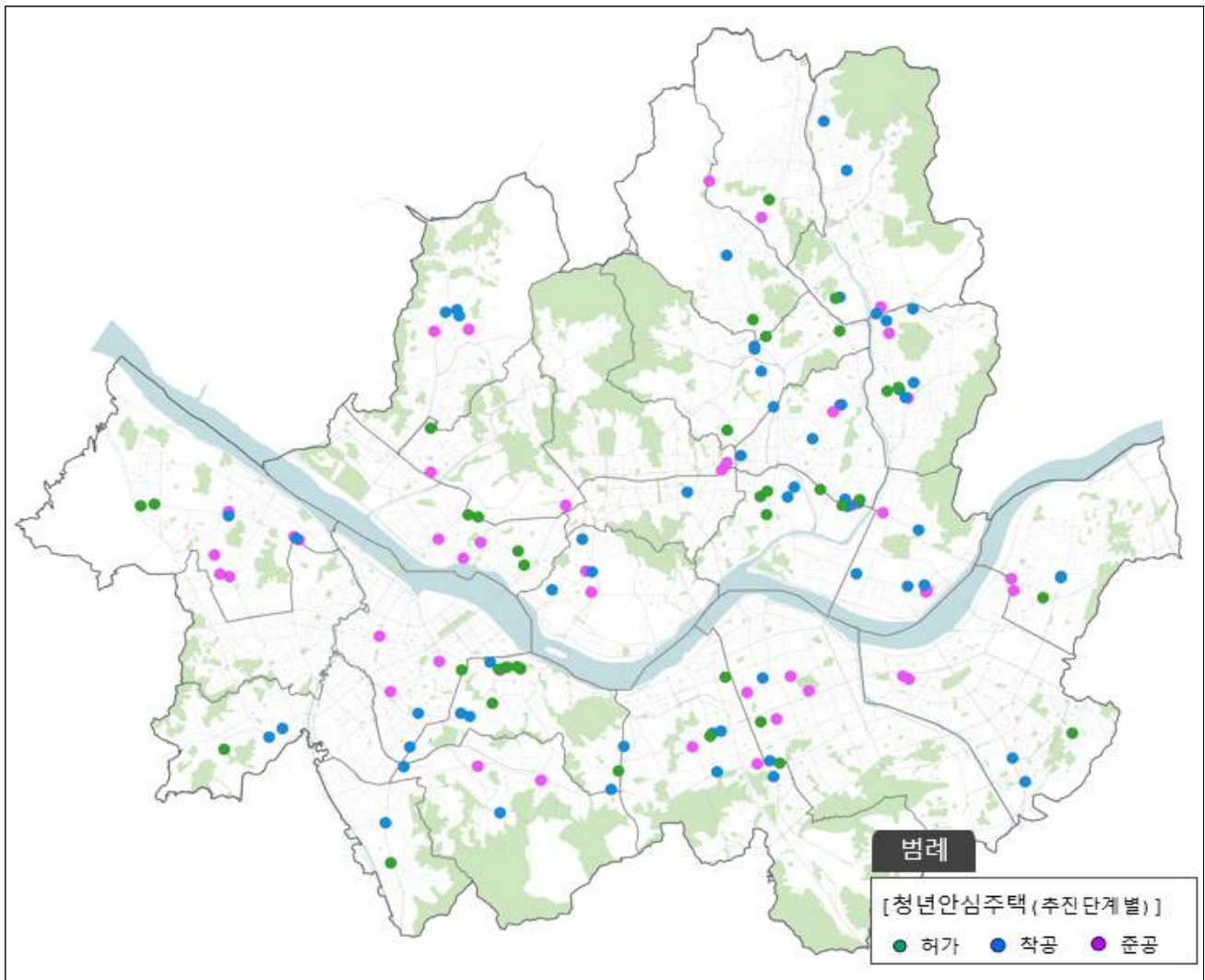
# 첨부1

## 청년안심주택(공공임대) 공급 현황

### □ 청년안심주택 추진현황

(’23.10.20. 기준)

구 분	사업지(개소)	호수(호)		
		계	공공임대	민간임대
계	139	46,723	13,674	33,049
허 가	36	9,472	3,327	6,145
착 공	58	21,794	6,835	14,959
준 공	45	15,457	3,512	11,945



□ 청년안심주택 준공 사업지 현황(호수)

(’23.10.20. 기준)

연번	사업지	계(호)	호수(호)	
			공공임대	민간임대
	계	15,457	3,512	11,945
1	서대문구 총정로3가 72-1 외7	499	49	450
2	성동구 용답동 233-1	170	22	148
3	광진구 구의동 587-64	84	18	66
4	마포구 서교동 395-43 외5	1121	199	922
5	강서구 등촌동 648-5	285	19	266
6	종로구 송인동 207-32	238	31	207
7	동작구 노량진동 37-1 외7	272	37	235
8	강서구 염창동 274-17	520	49	471
9	마포구 창전동 19-8 외1	681	120	561
10	동대문구 휘경동 192-1	99	9	90
11	용산구 한강로2가 2-350 외66	1226	421	805
12	서초구 서초동 1502-12 외	280	68	212
13	강서구 화곡동 401-1	57	9	48
14	마포구 상수동 355-2 일원	95	27	68
15	중랑구 상봉동 109-34	83	6	77
16	강동구 천호동 458-3 외 7	225	50	175
17	강서구 화곡동 1170	533	87	446
18	중랑구 묵동 176-39 외3	235	24	211
19	광진구 구의동 593-11	98	28	70
20	영등포구 도림동 250-20	99	18	81
21	노원구 공릉동 617-3외 2필지	270	75	195
22	강서구 등촌동 671-1	252	53	199
23	강서구 화곡동 1073-11	82	15	67
24	도봉구 쌍문동 103-6 외1	288	70	218
25	강남구 논현동 202-7	345	86	259
26	용산구 원효로1가 134	812	333	479
27	관악구 봉천동 854-3 외2	201	31	170
28	도봉구 쌍문동 507-1	253	48	205
29	은평구 구산동 198-3 외1	238	21	217
30	송파구 잠실동 208-4,9,17	298	88	210
31	광진구 중곡동 637-5일원	299	84	215
32	서대문구 남가좌동 269-1	124	15	109
33	은평구 대조동 2-9	977	347	630
34	영등포구 당산동2가 45-5	624	131	493
35	동대문구 휘경동 281-1	582	80	502
36	강남구 논현동 278-4	298	38	260
37	광진구 구의동 587-62	70	18	52
38	강남구 역삼동 738-29	78	19	59
39	관악구 신림동 75-6 외5	338	79	259
40	서초구 서초동 1365-8	411	122	289
41	영등포구 신길동 173-6	162	34	128
42	강남구 삼성동 140-35	299	82	217
43	강동구 성내동 87-1	900	264	636
44	송파구 잠실동 187-10	217	71	146
45	종로구 송인동 240-1	139	17	122